

##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 민 선†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자가평가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였다. 먼저,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척도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상담자 265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9문항), 요인 2 부모의 기대와 갈등 요인 탐색(6문항), 요인 3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5문항), 요인 4 진로상담 목표 설정 및 개입(6문항) 총 4요인 26문항이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하위요인과 문항들이 상담자들의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유사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하위요인과 문항들은 상담자들의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 개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077).

† 교신저자 : 김민선,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6555, E-mail : kms0108@catholic.ac.kr

사회의 빠른 변화와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산업구조 인해 다양한 직업들이 주기적으로 생성·소멸되고 있다(고재성, 2013; 반신환, 백미숙, 2011).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생애전반에 걸쳐 다양한 양상의 진로 및 직업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진로선택 및 결정, 직업전환, 직장적응 등 다양한 진로문제들을 겪고 있다(Super, 1990).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상승하면서 자신의 전공과 학력수준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어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직무불만족 등으로 인한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욱, 2017). 따라서 진로교육의 강화와 진로 및 직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센터나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내담자가 경험하는 복잡한 진로문제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진로상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최윤정, 2012; 최윤정, 이제경, 2014).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진로선택과 발달 등의 문제를 다루는 면대면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Swanson, 1995). 과거 진로상담자들은 주로 내담자가 경험하는 진로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 설정 및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Niles & Harris-Bowlsbey, 2013). 그러나 진로문제의 기저에는 심리적 문제가 공존할 수 있으며(Multon, Heppner, Gysbers, Zook, & Ellis-Kalton, 2001), 진로선택의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진로문제가 정서나 가족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Anderson &

Vandehey, 2012). Bingham(2002) 또한 진로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직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윤정, 이제경, 김선경(2013)의 연구에서 직업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의 진로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공격적이거나 우울한 특성 등을 가진 어려운 내담자를 다루는 방법이나 내담자의 심리문제를 다루면서 진로 및 경력에 대한 코칭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법과 절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다양한 심리·환경적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적절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McMahon & Watson, 2007; Young & Collin, 2004).

실제 진로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경력과는 별개로 진로상담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요구되지만, 진로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들의 진로문제와 배경이 되는 심리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려워했다(Cardoso, Taveira, Biscaia, & Santos, 2012). 유럽의 공공고용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Sultana와 Watts(2006)의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진로상담의 회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와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딜레마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상담자들은 진로상담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김수향, 탁진국, 2011), 유현실(2009)의 연구에서 진로상

담자들은 상담을 위한 태도와 자질은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은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로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 연구는 심리상담자 양성과 슈퍼비전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최윤정, 이제경, 2014). 따라서 상담자들이 진로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과 실무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진로상담 연구들이 진로상담 전반에 필요한 역량도출 및 척도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례개념화와 같이 진로상담 초기단계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례개념화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문제해결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명우, 2004). 내담자들의 욕구, 진로문제의 특성 등으로 인해 진로상담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초기에 이해하고, 개입방향을 정하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연구자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Brems, 2001; Brown & Brooks, 2003; Cormier & Nurius, 2003; Drummond & Ryan, 1995)은 진로상담의 초기면접에서 상담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언급함으로써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소개하였다. Schwitzer와 Rubin(2011)는 사례개념화가 내담자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언급하면서 사례개념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내담자의 주요 고민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내담자로부터 얻는 정보들의 특정 패턴과 주제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틀,

문제이해를 위한 이론과 적절한 개입방법들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있는 상담자들에게는 상담에서의 적절한 개입뿐만 아니라 상담자들이 자신의 상담 수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최윤정, 이제경, 2014), 초심 상담자들에게는 진로상담에서 개입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들이 진로상담에서 사례개념화 역량을 자가평가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는 상담자 스스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평가하고 내담자의 문제 이해, 상담의 목표 및 개입 등의 방향을 정하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며 진로상담 슈퍼비전이나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일부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시 고려해야 하는 내담자들의 정보들과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한 호소문제에 따른 유형화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김봉환 등, 2006; 이지은, 2017; Brown & Brooks, 2003; Brems, 2001; Cormier & Nurius, 2003)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진로상담의 초기면접과 사례개념화 단계에서 내담자의 현재문제, 정서 상태, 가족, 발달사, 진로선택과 발달을 방해하는 장벽들, 내담자의 진로목표 등과 같은 정보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Sampson, Peterson, Lenz과 Reardon(1992)은 진로상담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례개념화를 위해 내담자들을 문제에 따라 유형화(예: 진로결정자, 진로미결정자, 우유부단형)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 상담현장에서 얻은 경험적인 자료보다는 기존 진로이론들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자들이 내담자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김민선, 김민지, 이소연, 2018). 특히 많은 정보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상담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상담실제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슈퍼비전 현장에서도 슈퍼바이저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고려하는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역량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이 개발되었다(서경희, 김지현, 2008; 이운주, 2001). 서경희와 김지현의 연구(2008)에서 상담자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예: 종합적인 문제이해,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상담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례개념화 역량은 상담자의 발달수준, 상담경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상담자의 발달수준 및 경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가 평가 척도를 통해 상담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상담자들의 자기점검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nnestad & Skovholt, 2003).

사례개념화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기저에 있는 원인과 문제를 지속시키는 심리적

기제 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론에 따라서도 다른 사례개념화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Greenberg & Goldman, 2007). 또한 사례개념화에는 내담자의 호소문제, 상담의 회기, 목표 및 상담의 장애요인, 의뢰 등의 내용과 과정적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Eells, 2007), 내담자의 호소문제, 상담유형, 상담 장면 등에 따라서도 주요하게 탐색하는 내용과 개입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내담자의 특성, 경험, 대인관계 등 일반심리상담 사례개념화 척도(서경희, 김지현, 2008; 이운주, 2001)를 통해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들과 다른 내용이나 과정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척도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요소를 이해하거나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성혜숙과 김희정(2012)은 학교상담 사례개념화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학교장면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의 경우 일반상담의 사례개념화 요소들과 다르게 내담자의 자원 및 위험, 보호요인 파악, 내담자를 둘러싼 지원체계 파악 등 상담계획과 관련된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교장면에서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단기 개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상담과 다른 사례개념화 내용과 과정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진로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진로문제와 심리문제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진로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로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개입 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이재창 등, 2014).

Heppner와 Heppner(2003), Krumboltz(1993)는 심리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와 유사하게 진로상담을 할 때 역시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진로문제와 심리적 문제, 관계적인 특성, 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다양한 발달단계의 내담자들의 진로문제와 그 원인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적절한 상담목표 및 전략이나 기법을 계획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사례개념화 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평가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유현실과 김창대(2011)의 진로상담 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진로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언급하였다. 직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향, 탁진국(2011)과 최윤정, 이계경(2014)의 연구에서도 진로상담자 역량으로 진로상담 이론적 지식, 실무기술, 진로상담 전문가 태도와 자질 등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수행 과정 안에서는 관계형성, 사례개념화, 목표설정, 계획수립 등 다양한 과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과업에 따라 요구되는 진로상담자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까지 도출된 진로상담자 역량지표를 바탕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진로상담자 기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내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상담자 실무훈련이나 슈퍼비전, 고급 진로상담기술 과목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Spencer & Spencer, 1998).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를 통해 진로상담에서 사례개념화를 할 때 어

떤 요소를 탐색해야 하며, 내담자의 현재문제와 발생배경, 문제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기제 등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사례개념화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예비 문항들을 제작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슈퍼바이저급의 상담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선행연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상담자 265명을 대상으로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 자가평가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상담역량(최윤정, 이계경, 2014), 일반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서경희, 김지현, 2008), 진로상담 사례수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선행연구(최윤정, 이계경, 2014)를 바탕으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은 진로상담역량, 사례개념화 역량 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담경력, 상담 사례 수 등은 상담자의 발달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임고은, 김지현, 2008)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진로상담 사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로상담 사례수가 많을수록 사례개념화 역량도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방 법

###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 문항 개발 절차

문항개발은 1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질문개발, 2단계 상담자 인터뷰, 3단계 예비문항 제작 및 수정, 4단계 최종문항 선정으로 진행되었다. 문항개발 1단계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각 질문을 진로상담 실무경력과 연구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2인에게 보내어 질문의 적절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파일럿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 시 고려하는 사례개념화 요소와 사례개념화 과정에 대한 최종질문(예: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상담 시 사례개념화를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을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질문들을 통해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 전략 및 계획을 세우는지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상담자 9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하였다: (1) 진로상담 경력자, (2) 5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3) 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유.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을 소개받았으며, 기존 참여자들을 통해 새로운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사전에 연구목적 및 주요 질문을 참여자들의 이메일로 보내 답변을 미리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약 9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평균 9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3단계에서는 녹음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을 읽고 다음의 과정을 걸쳐 문항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도출은 본 논문의 저자와 상담전공 석사 과정생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소 3사례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 및 과정을 고려하여 총 173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진술문으로 내담자의 개인배경 및 적응수준(예: 현재적응 수준, 대인관계, 전공적응도), 진로관련 당면한 문제(예: 진로미결정 유형, 주요 호소문제, 진로준비도, 진로문제 해결 동기), 가족배경(예: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기대), 장점 및 역량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진로상담 전략(예: 전공 및 진로 관련 정보탐색, 의사결정 특성 이해, 실질적 진로탐색 경험 확인)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173개의 진술문 중 의미가 유사한 진술문들을 삭제 또는 통합하였으며 70개의 진술문을 예비문항으로 만들어 상담경험이 있는 석사 과정생 10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자 3인에게 파일럿 설문 실시하고 각 문항의 사례개념화 측정의 적절성, 이해하기 쉬운 정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 자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55문항의 예비문항이 도출되었다. 각 문항의 평정을 위해 기존의 상담자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서경희, 김지현, 2008)를 참고로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연구 대상 및 절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급 학교와 지역 상

담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진학 상담, 대학이나 공공기관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중심의 직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상담의 회기, 형태,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무에 따라 상담자들에게 요구되는 학력, 교육수준, 자격증, 전문적 역량 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유현실, 김창대,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내담자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심리학, 진로이론 등에 기반을 둔 사례개념화와 개입을 위한 척도 개발이기 때문에 진로와 심리적 문제를 함께 다루는 기회가 많은 상담자들과 다회 상담이 가능한 학교, 상담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에 근무하는 상담자 26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개발이기 때문에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09세( $SD=8.74$ )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109명(41.1%), 여성 156명(58.9%)이었다. 평균 상담 경력은 5.66년( $SD=5.62$ ), 평균 상담사례수는 792건, 진로상담 사례수는 264건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65명(24.5%), 대학부설 상담소 101명(38.1%), 사설상담소 81명(30.6%), 복지관 3명(1.1%), 병원 및 기타 12명(4.6%), 무응답 2명(0.8%)이었다. 학력은 석사과정 31명(11.7%), 석사수료 5명(1.9%), 석사졸업 42명(15.8%), 박사과정 104명(39.2%), 박사졸업 64명(24.2%)이었으며, 260명(92.1%)이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참

여자 중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2명(57.4%)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상담심리사 2급 67명(25.3%), 임상심리사 71명(26.8%), 임상심리 전문가 45명(17.0%), 청소년상담사 2급 72명(27.2%), 청소년상담사 1급 48명(18.1%)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대학상담센터 협의회 연차대회와 각 지역별 청소년상담센터나 대학 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심리학회 자격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하였다.

#### 측정도구

#####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서경희, 김지현, 200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하위요인은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10문항(예: “내담자의 정서, 사고, 행동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3문항(예: “내담자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긍정적이다”),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4문항(예: “현재 내담자의 주된 감정과 정서 상태를 알고 있다”), 상담목표 및 전략 4문항(예: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세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경희와 김지현

(2008)의 연구에서 상담자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상담자 발달수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50 \sim .59$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희와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4로 나타났다.

### 진로상담 역량

진로상담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최윤정과 이제경(2014)이 개발한 진로상담 수행 역량 자가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상담 이론 지식’, ‘진로상담 실무 기술’, ‘진로상담자태도 및 자질’ 총 3개 영역 14개의 하위요인(1요인 진로관련이론에 대한 이해, 2요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한 이해, 3요인 개인차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 4요인 진로상담 역량, 5요인 진로검사 역량, 6요인 진로정보 역량, 7요인 진로프로그램 역량, 8요인 지역사회 연계역량, 9요인 연구역량, 10요인 교육 및 수퍼비전 역량, 11요인 조직역량, 12요인 개인자질 역량, 13요인 전문가 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14요인 성찰/자기계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 보기 위해서 진로상담 실무 기술의 하위요인 중 진로상담에서의 실제적인 개입 역량을 측정하는 ‘진로상담 역량’ 하위요인 10문항(예: “내담자의 진로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담자의 진로문제와 개인특성에 적합한 상담 및 조력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내담자의 진로상담 목표 달성 및 변화 과정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직업 정보 및 계획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을 사용하였다. 최윤정과 이제경(2014)의 연구에서 진로상담 역량이 포함된 진로상담 실무 기술 요인은 상담자 발달수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40 \sim .52$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들의 사례 수( $r=.27$ ), 총회기( $r=.21$ ), 개인슈퍼비전 횟수( $r=.47$ ) 등과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최윤정과 이제경의 연구에서 진로상담 실무 기술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상담 역량 10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2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55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주축요인분석(Yong & Pearce, 2013)과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여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사용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7).

## 결 과

###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개별 문항과 문항 전체의 합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Nunnally & Bernstein, 1994), Nunnally와 Bernstein의 제시한 기준이 .30 이하인 문항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55문항을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총 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4요인으로 결정하였다. 4요인은 전체 변량의 41.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보면 요인 1 고유값 19.25(설명변량 35.00%), 요인 2 고유값 1.81(설명변량 3.29%), 요인 3 고유값 1.11(설명변량 2.01%), 요인 4 고유값 1.01(설명변량 1.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통계적 결과와 개념적인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한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32이하(Tabachnick & Fidell, 2001)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른 요인과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난 문항들을 제외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요인 1에 속한 문항 20(“학교 및 학과선택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 방식을 탐색하였다”), 요인 3에 속한 문항 24(“내담자가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하였는지 탐색하였다”), 문항 33(“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의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는 다른 요인들과 요인부하량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김민선, 김민지, 이소연, 2018)에서 진로사례개념화 직업정보 탐색 영역에서 상담자들이 자주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요인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문항 9는 요인 1에 속하는 타 문항들과의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문항 26은 내담자의 가치관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문항 29와 유

사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최종문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요인 1의 경우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 진로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 가족과의 의견 일치성, 갈등 등을 탐색하는 문항들이 주요하게 나타나 ‘부모의 기대와 갈등 요인 탐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내담자가 기피하는 진로특성이나 선호하는 직업, 직업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 정보에 대한 파악 등과 관련된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유형, 상담에서의 개입, 심리적 역량과 경험 등을 진단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요인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85,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 .75,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 .76,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 .83, 전체 26문항의 신뢰도 .93로 나타났다.

###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해 탐색적인 방법을 통해 4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모형 1과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상위요인이 4개의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2수준 측정모형인

표 1.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최종문항(N=265)

문항	요인부하량				M	SD
	1	2	3	4		
<b>요인 1(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9문항)</b>						
25. 내담자의 강점을 탐색하였다.	.69				6.22	.67
17. 내담자의 주된 감정 및 정서 상태와 진로문제를 연결해 이해하였다.	.65				6.22	.70
14.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 성격 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64				6.21	.66
29.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욕구 또는 가치관을 확인하였다.	.63				6.20	.65
28.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의 특성과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능력 등이 일치하는지 파악하였다.	.63				6.16	.68
52. 내담자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와 연결하였다.	.62				6.17	.70
18.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였다.	.60				6.16	.64
55. 내담자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확인하였다.	.60				6.14	.68
20. 학교 및 학과선택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 방식을 탐색하였다.	.52				6.07	.74
<b>요인 2(부모의 진로기대와 갈등요인 탐색, 6문항)</b>						
1. 내담자의 부모가 내담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62				5.91	.69
7. 내담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실제 기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탐색하였다.	.62				6.00	.84
5. 내담자와 가족이 원하는 진로가 서로 합의된 상태인지 파악하였다.	.60				6.11	.73
3. 내담자가 현재 진로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54				6.28	.76
2.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내담자의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54				6.11	.75
6.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지지해주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54				6.06	.71
<b>요인 3(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 5문항)</b>						
34. 내담자가 기피하는 진로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68				5.83	1.08
23. 내담자가 직업 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예: 현업 종사자들과의 만남, 설명회 등)	.62				6.05	.92
54. 여러 심리검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62				6.03	.80
24. 내담자가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하였는지 탐색하였다. (예: 인턴,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59				6.09	.73
33.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의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61				6.10	.67
<b>요인 4(진로상담의 목표 설정 및 개입, 6문항)</b>						
47.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유형(예: 정보부족, 성격, 정서, 비합리적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한 미결정)을 파악하여 개입방법을 적절하게 결정하였다.	.73				6.02	.74
21. 내담자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탐색하였다.	.70				5.99	.74
30. 내담자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좌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파악하였다.	.67				6.08	.80
48. 원하는 진로방향이 명확한 내담자들의 경우,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개입을 하였다.	.66				6.08	.75
41. 만성적인 진로문제를 가진 내담자에게는 심리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64				6.07	.75
42. 호소문제 외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안내하였다.	.57				6.04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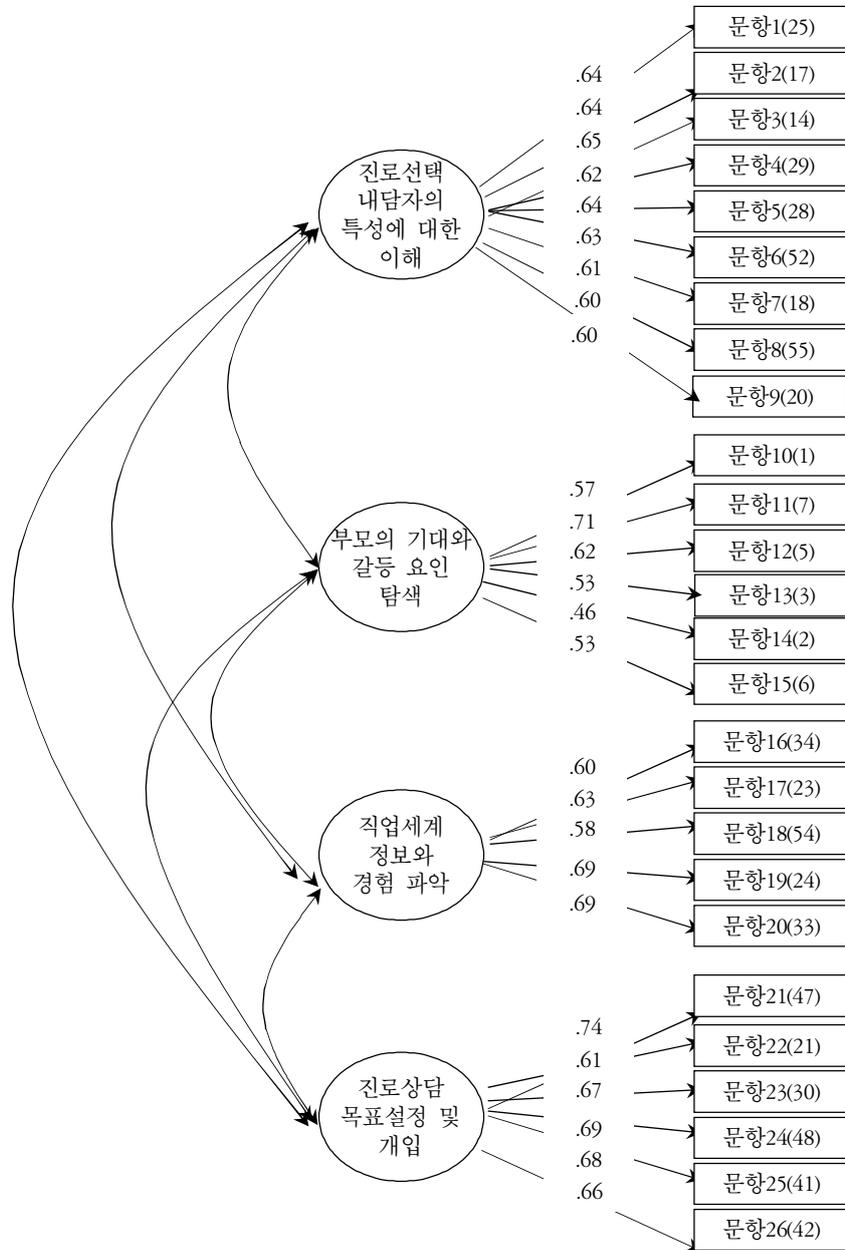


그림 1. 최종모형(N=265)

모형 2를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에 속하는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하위점수의 값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모형 2는 상대적으로 각 하위척도의 특성이 유사해 추

후 각 요인에 속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먼저 4요인의 상관을 가정한 1수준 모델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chi^2(291)=519.428$ , CFI=.91, TLI=.90, RMSEA=.055(.047-.062), SRMR=.05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했다( $p<.001$ ). 모형 2의 경우 적합도는  $\chi^2(294)=549.167$ , CFI=.90, TLI=.89, RMSEA=.057(.050-.065), SRMR=.0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고려하여 1수준 모델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요인간의 상관을 보면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요인들과 .69-.89,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은 .69-.85,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과악 .77-.89,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 .73-.77의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분석

마지막으로,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상담 역량과 상담자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역량, 진로상담 사례수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 타당도 분석 결과 진로상담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 특성에 대한 이해 요인은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r=.54, p<.001$ ), 진로상담 역량( $r=.43, p<.001$ )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과악 또한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r=.40, p<.001$ ), 진로상담 역량( $r=.59,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와 가족요인은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r=.40, p<.001$ ), 진로상담 역량( $r=.56, p<.001$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담목표 설정 및 개입은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r=.50, p<.001$ ), 진로상담 역량( $r=.59,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역량이 높을수록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루는 심리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역량과 진로상담에서의 내담자 이해와 개입 역량이 높음

표 2.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타당도

	1	2	3	4	5	6	7
1	-						
2	.56***	-					
3	.66***	.62***	-				
4	.65***	.63***	.62***	-			
5	.54***	.40***	.40***	.50***	-		
6	.43***	.56***	.59***	.59***	.57***	-	
7	.09	.15*	.20*	.16*	.09	.14*	-

주. N=265. 1 =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 3 =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과악, 4 =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 5 =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6 = 진로상담 역량, 7 = 진로상담 사례 수. \* $p<.05$ . \*\*\* $p<.001$ .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 사례수는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 $r=.15, p < .05$ ),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 $r=.20, p < .05$ ),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 $r=.16, p < .05$ )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역량( $r=.14, p < .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측정 문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최종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상담자 사례개념화 역량, 진로상담 역량, 진로상담 사례수와 상관계수를 통해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척도의 수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 평가 척도는 ‘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 ‘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 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를 위해 자기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과정, 선택과 결정 및

실천 등의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Phillips, 1992). 김봉환 등(2006)은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로 일반적인 특성, 진로계획과 관련된 정보,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보들을 탐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정보에는 학업 성적,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현재문제, 불안 수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진로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문제해결 능력, 진로 신화 혹은 편견,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진로방해 요소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발달에 관한 정보는 내담자의 일에 대한 경험, 교육이나 훈련, 여가 이용방식, 교우관계, 의사결정 양식, 강점이나 자원, 장애요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들은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역량 척도의 하위요인과 유사한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일반적 정보인 진로 신화 혹은 편견, 여가 이용방식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진로 신화 혹은 편견은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재창 등, 2014)로 본 연구에서 독립된 문항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요인 4(진로상담 목표설정 및 개입)에 제시된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고려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여가 이용방식이나 교우 관계 등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 언급하는 일상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상담자들이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진로관련 특성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다. Savickas (1995)는 내담자가 진로상담에서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 인생의 주제를 분명히 하고, 진로미결정 문제를 이해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애 주제들을 탐색하고, 이를 내담자의 특성과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상담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척도는 기존에 개발 및 타당화 된 사례개념화 척도(서경희, 김지현, 2008; 성혜숙, 김희정, 2012; 이윤주, 2001)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기존에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역량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례개념화 요소 도출 연구들의 경우 상담자들이 고려하는 많은 수의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성혜숙, 김희정, 2012; 이윤주, 2001). 서경희와 김지현(2008)은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역량을 자가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일반 심리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탐색했기 때문에 상담의 성격이나 개입방법 등이 다른 진로상담의 사례개념화 요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와 갈등 요인 탐색’, ‘직업세계 정보와 경험 파악’ 등 새로운 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상담자들은 진로상담 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정서, 사고 등을 파악(서경희, 김지현, 2008) 할 뿐만 아니라 흥미, 적성, 가치관, 강점 등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목표 및 전략 또한 단기 목표와 장기목표를 구분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의 특성이 만성적인지를 살펴보거나 심리적인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것은

유사했으나(서경희, 김지현, 2008), 진로상담에서는 인지적 통찰보다는 내담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목표나 개입 전략 등을 세웠다. 따라서 본 척도는 대학생 진로상담 시 초심상담자들이나 진로상담 경험이 적은 경력상담자들에게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들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진로선택 관련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담자의 특성 탐색(예: 강점, 흥미, 성격, 욕구, 가치관)과 진로문제 연결,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해, 감정과 정서 상태와 진로문제의 연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시 내담자의 문제평가 과정에서 상담자가 파악해야 하는 요소로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직업가치관, 자신감 정도, 정서 상태 등을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재창 등, 2014).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상담에서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의 유용성을 언급한 제언(이재창 등, 2014)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정서상태가 진로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내담자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요인 2(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 탐색)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부모의 의견, 가족 안에서 직업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나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Ghosh & Fouad, 2015). Markus와 Kitayama(1991)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온 개인들은 진로문제를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진로결정 시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둔 결정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높은 기대를 지각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가족의 선호 보다는 개인의 흥미를 추구하고자 할 때 진로갈등과 진로미결정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이다 (Leung, Hou, Gati, & Li, 2011; Ma, Desai, George, San Filioop, & Varon, 2014; Tsai-Chae & Nagata, 2008). 구체적으로, Ma 등(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아시아계 미국인 8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불승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들이 직업의 안정성, 전망,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와 진로갈등을 경험할 때 부모와 의견을 타협하거나 협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로 인식하였다 (Leong & Hardin, 2002; Ma & Yeh, 2005; Tang, 2002). 따라서 진로결정 어려움으로 진로상담을 찾아오는 일부 내담자들은 부모와 진로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기대와 갈등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봉환 등(2012)과 이재창 등(2014)은 내담자의 진로문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하나로 기본적인 가족사항과 가족갈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가족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기대(Ghosh & Fouad, 2015), 진로합치도(김수리, 2016), 부모의 지지(최수미, 2013; Flores & O'Brien, 2002) 등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상담자들은 부모와의 갈등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가 내담자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나 기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지각, 진로합치도, 부모의 지지 등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며, 대학진학이나 학과선택 등의 문제를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기연 등, 2015).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정체감(김은진, 천성문, 2001), 자아존중감(전은영, 권경인, 20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윤석은, 하창순, 2017; 최수미, 이동혁, 2015)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opez와 Andrews(1987)은 학생들이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로미결정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현재 호소하는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인지·정서적인 특성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요인 3(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파악)은 5문항으로, 진로나 직업과 관련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경험, 기피하는 직업, 실제 경험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이지은, 2017; 이재창 등, 2014)에서 언급하는 내담자의 진로발달 수

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진로경험이나 의식, 진로탐색이나 실천의 준비도, 일의 경험 등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Phillips(1992)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도와 실천요소로 교육 및 일에 대한 경험, 진로정보에 대한 이해 요소,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킬 및 취업활동 여부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한 요소로 진로관련 정보와 구체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진로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에서 보고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통찰과 더불어 행동을 통한 학습과 결단 등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요인 4(진로상담목표 설정 및 개입)는 6문항으로,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유형 파악과 개입방법 결정,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나 좌절에 대한 감내력, 호소문제 외의 기타 문제 등에 대한 탐색과 개입의 우선순위 결정, 실행 방법 논의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지은(2017)의 연구에서는 델파이 연구방법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를 종합·분석하였는데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로 종합이해(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상담자의 종합적 평가 및 이해 요소), 상담목표 및 전략(상담목표, 상담전략 및 개입요소)이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 및 가족관계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 파악 등을 통해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일련의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호소하는 진로문제 외의 기타 만성적인 진로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내담자의 진로문제를 다루기 전에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역시 진로상담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우울증, 우유부단, 불안 등 내담자의 정신건강 문제여부가 언급되었다(탁진국, 이상희, 공윤정, 은혜경, 2011; Borwn & Brooks, 2013). Borwn과 Brooks는 내담자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상담을 위해 진로상담을 미뤄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제한된 인지능력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들은 진로상담 맥락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다면적 평가를 통한 개입방법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좌절에 대한 대처방식(예: “내담자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좌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파악하였다”)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윤정(2011)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내담자의 정서와 대처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진로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통찰과 다양한 대처방식의 시도 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진로상담에서 상담자들은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정서적 특성과 좌절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개념화 요소와 상담자가 다룬 지금까지의 진로상담 사례수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진로상담 사례수가 많을수록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윤정과 이제경

(2014)의 연구에서 상담 사례수가 많을수록 진로상담 실무 기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진로상담 사례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사례개념화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객관적인 단서들을 모으는 과정(Loganbill & Stoltenberg, 1983) 혹은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이운주, 2001)를 탐색하고 종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진로특성(흥미, 성격, 가치관 등), 의사결정 유형, 정서 및 성격문제, 직업선호와 개인적 특성의 일치성 등 다소 방대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진로상담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내담자들의 미결정 문제를 유형화(예: 진로결정자, 진로미결정자, 우유부단형)하는 경향(김민선 등, 2018)이 있기 때문에 상담경력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호소 문제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미결정 유형을 먼저 분류한 후, 정보를 모두 탐색하지 않고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혹은 경험에 의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성들만을 선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경력에 따른 내담자 특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고, 상담 사례수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진로상담 역량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네 하위요인과 진로상담 역량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높이 평가할수록 진

로상담 수행 역량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역량과 상담수행 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김계현, 이운주, 2002; 김은혜, 2001; 전재영, 2001). 최윤정과 이제경(2014)의 연구에서 역시 사례개념화 등이 포함된 실무기술과 진로상담 역량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과 일반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자가평가 척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네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진로상담 실무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이제경, 2014). 구체적으로, 상담자 발달 수준 중 사례이해 능력이 높아질수록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담자 문제이해 능력과 진로상담 능력의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척도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를 주제로 연구를 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한다면 사례개념화 역량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척도를 활용하여 진로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역량과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상담의 과정 및 결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상담자들의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의 변화를 평가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심리상담 장면에서의 사례개념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척도개발에 초점을 두었다(이명우, 2004; 이운주, 2001; 서경희, 김지현, 2008). 이와 유사하게, 본 척도에서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의 특성과 내용을 반영하여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상담자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보 상담자들이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때 기준을 제공해 주거나 자신의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는 상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자 스스로 자가평가를 위해 본 척도를 보다 쉽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ønnestad와 Skovhot(2003)는 슈퍼비전에서 초심상담자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점검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슈퍼바이저들은 본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자들의 진로상담 역량과 발달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척도는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례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 통합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상담의 사례개념화의 경우 상담자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사례개념화를 위해 탐색하는 주요 내용과 모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eenberg & Goldman, 2007), 이운주(2001)의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때 주요 상담 이론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다양한 진로이론들이 소개되고 있고,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진로이론을 사용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이론에 따른 사례개념화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상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35.09세로 30대가 많았으며, 상담경력은 5.66세로 다소 경력이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진로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추가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경우 60% 이상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담하는 기관의 상담자들이었다. Super(1990)의 생애단계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는 탐색의 단계(15~24세)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 실행해 나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 및 학과선택 등의 발달과제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인식될 수 있으며(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2015), 확립단계(25~44세) 이후의 집단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주요하게 상담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보다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일부 문항(예: “여러 심리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하는 진로방향이 명확한 내담자들의 경우,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개입을 하였다”)들이 진로상담 개입 역량으로 비추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례개념화 개념에 부합하게 상담 전략이나 개입 계획을 세우는 의미(예: “-를 계획하였다”, “-개입 전략을 세웠다”)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Morgado, Meireles, Neves, Amaral, & Ferreira, 2017; Worthington & Whittaker, 2006)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결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는지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측정도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내적 합치도 외에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는 상담자가

자신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가 평가한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수준이나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 및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상담 수행 역량 자가 평가 척도(최윤정, 이제경, 2014)의 하위요인 중 ‘진로상담 역량’만을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상담을 찾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진로발달 이론 등에 대한 지식들(Swanson & O'Brien, 2002)을 측정하는 진로상담 이론과 지식(예: 진로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 개인차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 보다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성 (2013. 5). 진로지도의 역사적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 *고용이슈*, 88-108.
- 공윤정 (2011).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 김계현, 이윤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민선, 김민지, 이소연 (2018). 대학생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도출에 관한 질적연구. *진로교육연구*, 31(1), 103-130.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수리 (2016). 부모-자녀 진로 일치도, 적응 유연성이 대학생의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육연구*, 16(8), 29-48.
- 김수향, 탁진국 (2011). 진로 및 직업 상담자의 역량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30(2), 461-481.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동서정신과학*, 4(1), 147-162.
- 김은혜 (2001). 초보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준에 관한 연구: 상담전공생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간의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욱 (2017). 그토록 원했던 첫 직장을 스스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노동리뷰*, 151(10), 22-35.
- 반신환, 백미숙 (2011). 진로상담의 실제. 서울: 양서원.
- 배기연, 이동혁, 황매향, 이송하, 차지숙, 정혜윤 (2015).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진로지도 비교. *아시아교육연구*, 16(2), 83-115.
- 서경희, 김지현 (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 성혜숙, 김희정 (2012). 학교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 개발. *교원교육*, 28(4), 101-122.
- 유현실 (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실, 김창대 (2011).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241-268.
- 윤석은, 하창순 (2017).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 관계: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8(6), 239-256.
- 이명우 (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운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조봉환, 최인화, 임경희,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최정인, 김수리 (2014). 상담전문가를 위한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이지은 (2017).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고은, 김지현 (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87-1006.
- 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고용직업 능력개발연구*, 18(3), 27-56.
- 전은영, 권경인 (2011).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243-260.
- 전재영 (2001). 상담자의 개념화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미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13-234.
- 최수미, 이동혁 (2017).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진로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진로

-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5), 295-318.
- 최윤정 (2012). 진로상담 수퍼비전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13(2), 455-477.
- 최윤정, 이제경 (2014). 진로상담 수행 역량 자가 평가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5(4), 1475-1493.
- 최윤정, 이제경, 김선경 (2013).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가 인식한 심층상담 수퍼비전 요구에 대한 개념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18.
- 탁진국, 이상희, 공윤정, 은혜경 (2011).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최종보고서. 서울: 노사발전재단.
- Bingham, R. P. (2002). The issue may be the integration of personal and career issu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6), 885-890.
- Brems, C. (2001). *Basic skill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Belmont, CA, US: Wadsworth/Thomson Learning.
- Brown, D., & Brooks, L. (2003). *진로상담의 기술* (김충기, 김희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1에 출판).
- Cardoso, P., Taveira, M., Biscaia, C., & Santos, G. (2012). Psychologists' dilemmas in career counsell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2(3), 225-241.
- Cormier, S., & Nurius, P. S. (2003). *Interviewing and change strategies for helpers: Fundamental skills an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Thomson Learning.
- Drummond, R. J., & Ryan, C. W. (1995). *Career counseling: A development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Merrill.
- Eells, T. D. (2007).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In T. D. Eells(ed.),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2nd ed, pp. 3-32). New York: Guilford Press.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4-27.
- Ghosh, A., & Fouad, N. A. (2015). Family influence on careers among asian parent-child dyad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2), 318-332.
- Greenberg, L. S., & Goldman, R. (2007). Case formulation in emotion-focused therapy. In T. Eells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2nd ed. pp. 379-411). New York: Guilford Press.
- Heppner, M., & Heppner, P. (2003). Identifying process variables in career counsel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3), 429-452.
- Krumboltz, J. D. (1993). Integrating career and personal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2), 143-147.
- Leong, F. T. L., & Hardin, E. E. (2002). Career psychology of Asian Americans: Cultural validity and cultural specificity. In G. Hall & S. Okazaki (Eds.), *Asian American Psychology: The science of lives in context*(pp. 131-1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ung, S. A., Hou, Z. J., Gati, I., & Li, X. (2011).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 cultural-values orient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11-20.
- Loganbil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3), 235-241.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6), 304-307.
- Ma, P. W., Desai, U., George, L. S., San Filippo, A. S., & Varon, S. (2014). Managing family conflict over career decisions: The experience of Asian America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1(6), 487-506.
- Ma, P. W., & Yeh, C. J.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decision status of Chinese American youth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4), 337-34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Mahon, M., & Watson, M. (2007). An analytic framework for career research in the postmodern er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7(3), 169-179.
- Morgado, F. F. R., Meireles, J. F. F., Neves, C. M., Amaral, A. C. S., & Ferreira, M. E. C. (2017). Scale development: Ten main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future research practices. *Psicologia: Reflexão e Crítica*, 30(3), 1-20.
- Multon, K. D., Heppner, M. J., Gysbers, N. C., Zook, C., & Ellis-Kalton, C. A. (2001). Client psychological distres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24-335.
- Niles, S. G., & Harris-Bowlsbey, J. (2013).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 in the 21<sup>st</sup> century*(4th ed). NY: Pearson Education, Inc.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Phillips, S. D. (1992). Career counseling: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51-548). New York: Wiley.
- Rønnestad, M. H., & Skohvold,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67-74.
- Savickas, M. L. (1995). Examining the personal meaning of inventoried interests during career counsell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2), 188-201.
- Schwitzer, A. M., & Rubin, L. C. (2011).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skill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ousand Oaks, CA: SAGE.
- Spencer, L., & Spencer, S. (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

- 재창 역). 서울: PSI. (원서출판 1993).
- Sultana, R. G., & Watts, A. G. (2006). Career guidance in public employment services across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6(1), 29-46.
-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wanson, J. L. (1995). The process and outcome of career counsel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pp. 217-259). Mahwa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wanson, J. L., & O'Brein, K. M. (2002). Training career counselors: Meet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n S. G. Niles (Ed.), *Adult career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practices*(3rd ed., pp.354-369). Columbus, OH: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Tang, M. (2002). A comparison of Asian 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An initial repor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2), 124-134.
- Tsai-Chae, A. H., & Nagata, D. K. (2008). Asian values and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family conflict among Asian American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05-214.
- Worthington, R., & Whittaker, T.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 Yong, A. G., & Pearce, S. (2013). A beginner's guide to factor analysis: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9(2), 79-94.
- Young, R. A., & Collin, A. (2004). Introduction: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career fiel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373-388.

원 고 접 수 일 : 2018. 05.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6. 29  
계 재 결 정 일 : 2018. 10. 15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unselor Self-Evaluation Career Counseling Conceptualization Scale

**Min Sun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counselor self-evaluation career counseling conceptualization scal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xploratory causal analysis on 265 counselors in order to develop the questionnaire and explore the substrate of the scales. Probing factor analysis resulted in four factor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 (9 items), exploring parent and family factors (6 items), identifying job information and experiences (5 items), and setting counseling goals and interventions (6 item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derived sub-factors and questions adequately explained the counselor's data,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assess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s were appropri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these self-assessments measures in career counseling cases.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counselor self-evaluation career counseling conceptualization scale